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09.02 / 제8호



2018 SEASON

2018시즌 경기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KEY PLAYER INTERVIEW

‘레글라스’ 남준재, “부러진 손가락보다 팀의 승리가 중요했다”

ROOKIE INTERVIEW

김혁중, “인전에서 잘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선”

TRAINING TIP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 목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3월 03일(토) 16:00	2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7월 25일(수) 19:30	2 인천 : 포천 0	인천축구전용
03월 10일(토) 14:00	3 인천 : 전북 2	인천축구전용	07월 28일(토) 19:00	1 전남 : 인천 3	광양축구전용
03월 17일(토) 14:0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8월 04일(토) 20:00	1 인천 : 포항 2	인천축구전용
04월 01일(일) 14:00	1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8월 08일(수) 19:30	1 인천 : 목포 2	인천축구전용
04월 07일(토) 14:00	2 인천 : 전남 2	인천축구전용	08월 11일(토) 19:00	2 대구 : 인천 1	대구스타디움
04월 11일(수) 19:30	0 인천 : 상주 1	인천축구전용	08월 15일(수) 19:30	0 인천 : 상주 0	인천축구전용
04월 14일(토) 16:00	4 제주 : 인천 2	제주월드컵	08월 19일(일) 19:00	7 강원 : 인천 0	춘천송암
04월 22일(일) 16:00	2 인천 : 수원 3	인천축구전용	08월 22일(수) 19:30	3 인천 : 전남 1	인천축구전용
04월 25일(수) 19:30	2 울산 : 인천 1	울산문수	08월 25일(토) 19:00	0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04월 29일(일) 16:00	2 인천 : 경남 3	인천축구전용	09월 02일(일) 18: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05월 02일(수) 19:3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09월 15일(토) 16: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05월 05일(토) 14:00	1 인천 : 제주 2	인천축구전용	09월 22일(토) 14:0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05월 13일(일) 14:00	3 상주 : 인천 2	상주시민	09월 26일(수) 16:0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05월 20일(일) 14:0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09월 30일(일) 16: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07월 07일(토) 19:00	3 전북 : 인천 3	전주월드컵	10월 06일(토) 14:00	 대구 : 인천 	대구스타디움
07월 11일(수) 19:30	3 인천 : 강원 3	인천축구전용	10월 20일(토) 14: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07월 14일(토) 19:00	3 경남 : 인천 0	창원축구센터			
07월 18일(수) 19:30	5 수원 : 인천 2	수원월드컵			
07월 22일(일) 18:00	2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K LEAGUE 1

K리그 1(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경기 일정은
10월 이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www.incheonutd.com)를 통해 추가 및 변경되는 경기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UNITED 2018 SQUAD



온 안데르센 감독
HEAD COACH



박성철 코치
COACH



임중용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자스민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웅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광해성
DEFENDER



32 정동운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34 김한빈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종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남준재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1 조주영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목

- 거북목 증후군이란? (목 디스크 자가진단)
- 목 통증을 잡아주고 거북목증후군 예방 테이핑
- 목 통증 잡는 스트레칭 및 운동



축구선수들도 목 뒷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훈련 혹은 경기 중에 계속해서 공중 볼을 보거나, 헤딩을 할 때 목의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전, 중, 후에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승모근의 뭉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는 목 부위 통증을 야기시킨다.

현대사회 증상 중 하나는 근로자부터 학생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 뒤쪽에 뻣근함과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거북목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거북목 증후군은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경추, 즉 목뼈(7개)는 본래 앞쪽으로 볼록하게 휘어 배열된 C자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거북목 증후군은 이러한 경추 곡선 정렬이 소실되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목의 모양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폰과 같은 비주얼 디스플레이 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VDT증후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거북목, VDT증후군은 근육과 뼈, 신경, 눈의 건강장애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목(경추) 관련 증후군이다.

이는 우리들의 생활습관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개 우리들이 앉아 있는 자세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는 등의 힘과 복부의 긴장감을 푼 '구부정한 자세'다. 이러한 자세 변화는 등(흉추) 바로 위에 위치한 목(경추)의 변형도 유발한다. 목 뒤의 근육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약화되어 머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 이는 목의 근력약

화를 동반하고 아래쪽의 목은(하부 경추)는 구부러지고 위쪽의 목(상부 경추)은 턱만 살짝 들어 올리게 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위로 젖히는 방향으로 배열되면 자연적인 경추의 C자 배열이 무너진다. 결국, 일자형태의 목 혹은 거북이처럼 고개만 앞으로 쭉 내민 자세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목 관련 증후군은 초기에는 목과 어깨부분에 근육이 뭉쳐 뻣근하다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정도로 그친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근육의 기능장애를 가져오고 인대 및 경추 자체 변형이 목 뒤에 세밀하게 위치한 신경까지 압박해 경추성 두통, 턱관절 기능장애까지 유발 할 수 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금방 피로해지는 등 일상생활까지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심하게 진행될 경우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그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듯, 목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먼저 평소 스트레칭을 통해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증후군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거나 딱딱한 베개는 피하는 것이 좋고, 낮고 경추의 정렬을 고려한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목이 지나치게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를 조정해 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수술 등의 치료 없이도 스트레칭, 운동으로 충분히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목편에 함께 해준 남준재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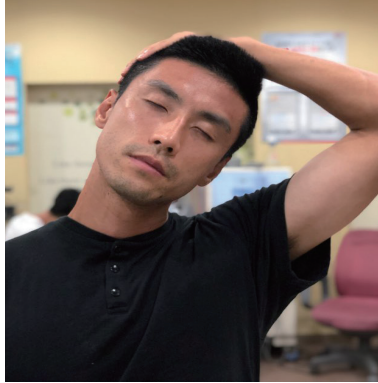


목(경추) 스트레칭 운동



〈누워서 턱당기기〉

1. 바른 자세로 눕는다.
2. 정수리 방향으로 목을 최대한 길게 빼고 고개가 약간 뒤로 넘어가게 한다.
3. 턱을 최대한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목 앞쪽은 힘을 주고, 목 뒤쪽을 이완되도록 한다.
4. 턱을 당긴 자세를 2~3초 간 유지하고 이를 10회 반복한다.



〈목 옆으로 당기기〉

1.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고개를 약간 굽히고 손으로 머리를 눌러준다.
2. 목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고, 옆으로 눌러준다.
3. 몸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반대편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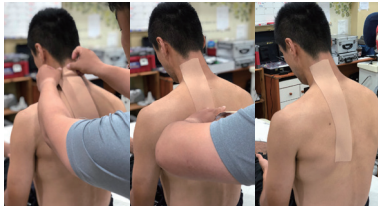
〈누워서 목 늘리기〉

1. 머리 밑에 한 손을 두고 머리, 목, 어깨 윗부분부터 천천히 가장자리에 걸치도록 한다. (갑작스럽게 머리를 젖히지 않도록 한다.)
2. 머리를 받친 손을 천천히 놓아주면서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낮춰준다.
3. 목을 늘려준 이후에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더욱 스트레칭 시켜준다.

키네시오 목(경추) 테이핑 방법



1. 키네시오약 30cm x 2개를 준비한다.(목 길이에 따라 다르게 준비)
2. 바른 자세에서 목을 앞으로 숙여 스트레칭 시켜준다.(준비자세)



1. 목 바로 뒤쪽부터 시작해 불록하게 나온 척추근 근육 라인을 따라서 붙여준다.



1. 반대쪽도 불록하게 튀어나온 척추기립근 라인을 따라서 붙여준다.
2.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핑 한 부위를 비벼주며 마무리한다.

거북목 자가진단 항목



1. 목과 어깨가 쉽게 뭉치며, 통증이 있고 돌릴 때 소리가 난다.
2. 목과 등을 잇는 경계의 목뼈(7번 경추)가 유난히 튀어나와있다.
3. 목덜미에 살이 많고 주름이 많은 편이다.
4. 앞으로 보고 똑바로 서면 귀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이 일직선이 아니다.
5. 쇄골과 어깨 사이에 손바닥을 댄을 때, 어깨가 유난히 앞으로 말려있다.
6. 육안으로 봤을 때, 좌우 쇄골 높이와 모양이 다르다.
7. 안색이 칙칙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8.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이 잦다.
9. 가슴이 처진 편이다.
10. 등이 굽어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10개 중 7개 이상 해당 = 거북목 증상 의심 수준

5개 이상 해당 = 거북목 증상 예방을 위한 운동필요 단계 수준



KEY PLAYER INTERVIEW

JOON JAE NAM

‘레골라스’ 남준재,
“부러진 손가락보다
팀의 승리가 중요했다”



벌써 세 번째 파검의 전사가 된 인천유나이티드 남준재가 복귀 직후 그라운드에서 뿔뿔 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전했다. 그러나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지난 20라운드 전남원정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남준재는 다시금 승리의 활시위를 당기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UTD기자단이 만나본 월간매거진 9월호의 주인공은 남준재다.

‘부러진’ 손가락 보다 경기가 더 중요했다

앞서 언급했듯 남준재는 지난 7월 28일 전남원정경기에서 전반 15분경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장 바깥으로 빠져 나갔다. 그는 손가락이 부러진 것을 알아차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통증을 참아가며 전반 45분을 소화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은 이날 3-1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을 거뒀다.

남준재는 “내 부상보다 팀 승리가 더 간절했다. 당시 팀이 0-1로 지고 있었고, 만약 내가 교체되어 나갔다면 교체 카드를 버리는 꼴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 뒤 “경기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 게 걱정 됐다. 부러진 손가락보다 팀의 승리가 더 간절했고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어느덧 남준재가 손가락을 다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

다.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해 묻자 남준재는 “팔이 아직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체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에 팀 훈련에는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며 여전히 준비된 자세를 내비쳤다.

홍명성씨 중 인천의 ‘흥’과 함께한 남준재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던졌다. 남준재는 “이것이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2-1 승)에서 남준재는 복귀골을 쏘아 올리며 특유의 화살 세레머니를 펼쳐 보였다. 먼저 그는 “성남FC 시절 선수 생명에 대해 위기를 많이 느꼈다. 버티고 버텨서 인천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인천에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뿐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팬들 덕분이기도 하다. 사실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줄 몰랐다”고 웃어 보인 뒤 “팬들의 함성소리와 응원 소리를 듣는 것이 기다려졌고, 지금 열심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은 팬들 덕분이 크다”며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항상 바라왔음을 전했다.

인천에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뿐이었다

내가 다치고 나서
팀이 다시 안 좋아져서
마음이 무겁다.



INCHEON
UNITED

남준재
FORWARD

1988년 4월 7일
182cm, 75kg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소중한다”

공교롭게도 남준재가 부상으로 이탈한 직후부터 인천은 다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을 향한 애절한 마음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팀의 현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좋지 못한 분위기였다. 선참으로서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선참들끼리 미팅을 하고, 많은 대화와 노력을 이어간 끝에 거둔 결과물이 서울전과 전남전 승리였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 다음 “내가 다치고 나서 팀이 다시 안 좋아져서 마음이 무겁다. 내가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K리그 1 잔류를 위해 남은 경기에서 분투가 필요한 상황. 남준재는 하루 빨리 부상에서 회복하여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다. 복귀한 다음 매 경기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인천이 맺어준 결실...사랑하는 내 가족

남준재는 인천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도 했고, 결혼도 하고 첫 아이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애절한 마음만큼 인천에 대해서도 애뜻함을 가지게 된다”며 지금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인천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첫째가 지금 5살인데 축구를 잘 본다. 운동장에서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활약이 좋지 못하면 아들이 슬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아내도 거의 반 감독 수준이다.(웃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남준재는 이내 다시 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은 끈끈한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앞장서서 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다.



MATCH PREVIEW

스플릿라운드 돌입 전, 생존을 위한 승점을 쌓아라!

절체절명의 위기다. 후반기 들어서도 쉽사리 반전의 기틀을 만들지 못한 인천유나이티드는 8월 최하위 추락의 수모를 맞이했다. 이제는 정말이지 물러설 곳이 없다. 벼랑 끝 위기 상황에서, 인천은 9월 상위권에 있는 3팀을 상대로 운명의 9월 홈경기를 치른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INCHEON

2라운드 / 9월 2일(일) 18시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ULSAN



날카로운 발톱을 장착한 울산의 측면을 봉쇄하라

인천의 9월 첫 홈경기 상대는 울산이다. 인천은 올 시즌 울산과 2차례 맞붙어 1무 1패로 열세에 놓여 있다. 9라운드 원정에서 1-2로 패했고, 14라운드 홈경기에서는 종료 직전 임은수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서 1-1로 비겼다. 통산 전적에서는 12승 12무 20패로 인천이 열세에 놓여 있지만 최근 3년(2016-2018) 동안의 맞대결 결과는 3승 2무 3패로 백중세의 흐름이다.

울산의 최대 장점은 속도다. 김인성, 황일수 등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약한다. 인천이 올 시즌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빠른 속도를 가진 울산의 공격진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여름 이적 시장에 울산에 합류한 국가대표 공격수 이근호의 존재는 인천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속도와 함께 울산이 자랑하는 무기는 안정적인 수비진이다. 이명재-리차드-강민수-김창수로 구성된 포백이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호흡을 맞춰오며 조직력을 다졌다. 중반부터는 리차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기도 있었지만, 임종은이 그 자리를 메워주며 수비력을 유지했다. 월드컵에서 다친 수비형 미드필더 박주호가 아직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수다.

후반기 울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임대 영입한 미드필더 믹스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에서 울산으로 임대 온 믹스는 기대치에 걸 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중원에서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울산 빌드업의 퀄리티를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활약이 괜찮다. 인천의 입장에서는 믹스의 패스줄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INCHEON

28라운드 / 9월 15일(토) 16시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SUWON



선장 잃은 수원삼성...지긋한 수원 징크스 탈출 기회

27라운드 울산전을 마친 뒤 인천은 A매치 주간으로 짧은 휴식기를 가진다. 그리고 다시 안방에서 수원을 상대로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인천은 수원과 2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8라운드 홈경기에서는 2-3로 아쉽게 패배를,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2-5로 큰 점수차로 패했다. 인천이 수원을 상대로 마지막 거둔 승리는 2013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기록한 2-1 승리다.

수원이 상위 스플릿에 합류한다는 가정을 둔다면 이번 맞대결이 올 시즌 양 팀이 갖는 마지막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으로서는 수원에 약했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인천이 올 시즌 강원FC(3전 12실점)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내준 팀이 수원이다. 베테랑 데얀, 염기훈 뿐 아니라 전세진, 유주안, 박형진 등 다양한 선수들에게 실점을 내줬다.

때문에 인천은 수원전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접근보다는 팀 전반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나마 인천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수원이 때론 비슷한 형태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다. 3-4-3 포메이션은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수원에 고착화되었다. 또 수원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팀이다. 인천은 경기 초반 수원의 기를 확실히 죽여 늦여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경기에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원의 로테이션이다. 수원은 인천전 직후 ACL 8강 2차전을 치러야 한다. 수원 입장에서 인천전보다 ACL에 초점을 맞춰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변수는 홍철이다. 홍철은 상주에서 21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다. ACL에는 등록 문제로 나설 수 없는 홍철이기에 인천원정 출장은 기정사실화와 다름없다.



INCHEON

31라운드 / 9월 30일(일) 16시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YEONGNAM



자존심이 걸린 싸움...말경 막아야 승리가 보인다

수원과의 홈경기 이후 인천은 포항원정, 서울원정을 다녀온 다음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경남FC를 상대한다. 스플릿라운드 돌입 전에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다. 올 시즌 인천은 경남과 2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10라운드 홈경기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종료 직전 실점하며 2-3으로 패했고,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말경을 막지 못하며 0-3으로 완패를 기록했다.

경남의 최대 장점은 역시 말경이다. 강원의 제리치와 함께 연일 득점왕 레이스를 펼치는 말경은 경남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말경은 큰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은 물론, 유연함과 뛰어난 슈팅 능력까지 갖춰 언제든 득점할 수 있다. 말경을 지원하는 네게바와 쿠니모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파울리요 등 모두 말경을 향한 도움뿐만 아니라 직접 득점도 가능한 선수들이다.

올 시즌 경남 상승세의 숨은 MVP 최영준도 조심해야 할 선수다. 최영준은 말경, 네게바 등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선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렇지만 '경남의 캄테'라는 별명처럼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이 아주 훌륭하다. 인천이 경남의 골문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최영준의 벽을 먼저 넘어야만 한다.

상승세를 탄 클럽답게 경남의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 활약이 좋다. 주전 수문장 손정현은 물론이며 전북 원정에서 놀라운 세이브 능력을 보여준 후보 골키퍼 이범수의 활약도 훌륭하다. 지난 4월, 인천을 상대로 후반 막판 결승골을 터뜨린 센터백 박지수와 경남의 탄탄한 수비를 이끄는 김현호, 우주성 등 공수 전반적으로 팀과 함께 상승세를 타는 선수가 많은 경남이다.

인천유나이티드 MMA 트리오, 국가대표팀 동시 차출 '검경사'



인천유나이티드 M(문선민)-M(무고사)-A(아길라르) 트리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인천 구단 창단 이래로 한 시즌에 국가대표 3명이 차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선민-무고사-아길라르 MMA트리오는 9월 2일 울산 현대와의 리그 27라운드 홈경기를 마치고 각각의 대표팀에 소집된다.

문선민-무고사-아길라르로 이어지는 MMA트리오는 올 시즌 인천의 화끈한 공격 축구의 중심에 선 이들이다. 26라운드 현재 인천이 36골을 뽑아냈는데 이 중 MMA트리오가 뽑아낸 득점은 무려 25골이다. 무고사와 문선민은 각각 리그 득점랭킹 4, 5위에 올라있고 아길라르는 7도움으로 도움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인천을 통해 K리그 무대에 입문한 문선민은 올 시즌 들어 일취월장한 모습을 선보이더니 국가대표로 깜짝 선발되어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영광을 안았다. 비록 월드컵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문선민은 적극적인 플레이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스타로 발돋움했다.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다시 인천에 돌아와 후반기에 꾸준히 득점 행진을 이어간 문선민은 26라운드 현재 25경기 출전 11골 4도움의 기록이 증명하듯이 현 시점 인천의 측면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선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9월 7일 코스타리카, 9월 11일 칠레와의 A매치에 출격할 예정이다.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 역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올 시즌 인천에 입단해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무고사는 탄탄한 기본기를 토대로 화려한 연계 플레이는 물론이며 테크닉과 센스 그리

고 확실한 결정력까지 그야말로 만점 활약을 선보이며 26라운드 현재 12골 2도움의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꾸준히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활약해왔던 무고사는 이러한 인천에서의 맹활약을 토대로 다시금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됐다. 한편 무고사가 포함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은 9월 A매치 주간을 활용해 UEFA 네이션스리그에 출전하며 9월 7일 루마니아, 9월 10일 리투아니아와 각각 맞대결을 펼친다.

아길라르 역시 올 시즌 인천에서 만점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중원의 마법사라는 별명에 걸맞게끔 확실한 테크니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남다른 볼 터치 감각을 자랑하는 아길라르는 볼 소유, 전진 패스 능력과 날카로운 원발 등을 앞세워 인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길라르는 A매치 12경기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러시아 월드컵 무대는 밟지 못했다. 성실함과 꾸준함을 자랑하는 아길라르는 인천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토대로 모처럼 자국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기쁨을 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은 9월 7일 대한민국, 9월 11일 일본과 각각 맞대결한다.

올해도 힘겹게 생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이지만 창단 이래 처음으로 다수의 국가대표를 보유한 의미 있는 시즌을 맞게 됐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인천이 생존 싸움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유나이티드 하이트필바든존

하이트필바든존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Feel **필바든치킨**에서 제공하는 닭강정을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닭강정은 맛보기용으로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됩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5테이블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10,000원	7,500원	2,500원

정상가: 테이블당(2인) 30,000원

※ 1인당 가격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이라운지

아늑한 공간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Meals on Wheel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다과를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6명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20,000원	15,000원	5,000원

정상가: 성인 및 청소년 30,000원 / 어린이 20,000원



INCHEON
UNITED

김혁중
FORWARD

1994년 12월 9일
181cm, 76kg

ROOKIE INTERVIEW

프로데뷔전을 치른 김혁중, "인천에서 잘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선"

지난 4월 1일, K리그 1 4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깜짝 데뷔전을 치른 신인 선수가 있다. 바로 올 시즌 개막에 앞서 진행했던 공개테스트를 거쳐 인천에 입단하게 된 김혁중이다.

안타깝게도 서울과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모습을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다. 현재 무릎 부상에서 회복중인 신인 선수 김혁중을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축구

김혁중은 서울송곡초-서울광희중-서울장훈고-단국대 출신으로 올해 인천에 입단했다.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어릴 적 우연히 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학을 간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많이 접했다. 축구부가 있어 4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축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번호인 30번에 대해서는 "이전 팀인 김포 시민축구단에서 30번을 달고 뛰었는데 마침 그 번호가 비어있어서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선호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공격 포지션이기에 어릴 적에 사용했던 14번이나 17번 등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데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앞서 언급했듯 김혁중은 4라운드 서울원정에서 깜짝 데뷔전을 치렀다. 김혁중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구장도 크고, 관중도 많아 감정이 막 벅차올랐던 기억이 난다"면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과 소통하다보니 어느 정도 긴장은 풀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서 그는 "팀에 늦게 입단했기에 동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 운동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사라졌고 지금은 적응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적응에 도움을 준 선

수로는 또래 김동민, 김석호, 김정호를 비롯해 문선민과 송시우(상주상무) 등을 꼽았다.

나의 롤모델은 벤제마

공식경기 1경기 출장. 아직 보여준 게 적은 김혁중이기에 여러 인천 팬들은 그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이에 대해 묻자 김혁중은 "개인적으로 연계 플레이에 자신이 있다. 신인이기 때문에 패기 있는 플레이를 잘할 수 있다"고 수줍음 속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벤제마 선수를 좋아한다. 이 두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을 추구하고 닮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골을 넣는다면 "부모님, 여자친구, 인천 팬들을 위해 하트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최대한 오래 뛰고 싶다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디딘 그에게 축구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물었다. 김혁중은 "인천이라는 팀은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해준 팀이다. 이에 인천에서 최대한 오래 뛰고 싶다"면서 "최종 꿈은 국가대표지만 인천에서 잘하고 발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혁중은 "경기장에서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군대에 간 (송)시우형처럼 골을 잘 넣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4월 서울원정 이후 경기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무릎 부상에서 회복중이기에 팬들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김희웅 UTD기자(gmldnd1101@hanmail.net)

IUFC
BLUE MARKET 

인천의 ‘위닝 메이커’ 문선민 스카프

23,000원

지금 바로 블루마켓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VICTORY

K LEAGUE 1 27 ROUND

9 / 2 (일)
18:00



VS 울산

K LEAGUE 1 28 ROUND

9 / 15 (토)
16:00



VS 수원

K LEAGUE 1 31 ROUND

9 / 30 (일)
16:00



VS 경남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승의역

☎ (032) 880 - 5500
WWW.INCHEONUTD.COM



*본 할인쿠폰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블루카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